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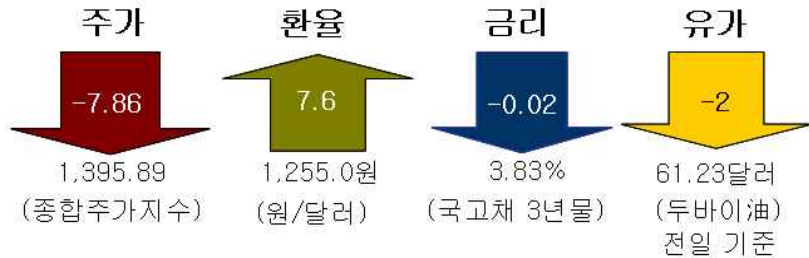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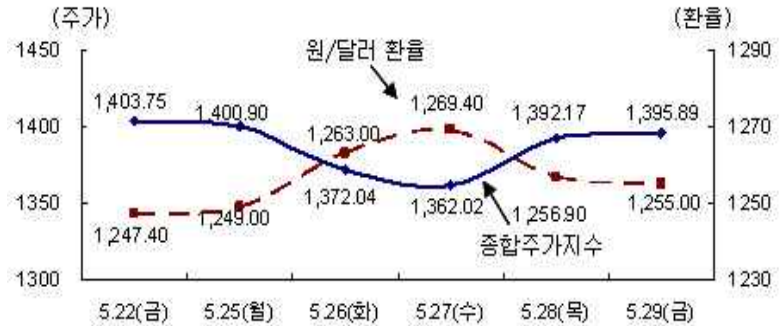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2~5.29)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조 호 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불황형 경상수지 대폭 흑자 지속) 최근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또한 2월 35.6억 달러, 3월 66.5억 달러, 4월 42.8억 달러의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불황형 흑자에 가리워진 문제점) 첫째, 국내 수출 부진 심화가 우려된다.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율이 총수출 감소율보다 높아 향후 수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4월, 2009년 세계 교역량 전망을 -2.8%에서 -11.0%로 크게 낮추었고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증가율이 -30%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부진이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자본재 수입 감소에 의한 투자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할 수 있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2008년 1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4월 -26.8%에 이르고 있다. 자본재 수입 감소에 따라 설비투자 역시 2008년 10월 -7.7%에서 11월 이후 급락하여 4월 현재 -25.3%에 이른다. 또한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액은 2009년 1/4분기 17.7조 원으로 2001년 이후 최저 투자액이다. 이러한 투자 위축이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갈수록 약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감소세와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잠재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외화 유입 증가는 환율 가치를 급속하고 과도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4분기 107억 달러, 2/4분기 11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환율은 1/4분기 1,596원에서 2/4분기 1,394원으로 무려 14.4%나 떨어졌다. 2009년에 들어서도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3월 2일 1,570원까지 급등한 환율은 4월 28일 현재 1,256원으로 20% 급락했다. 환율 급락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 증가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도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본원통화 증가율은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한 자릿수 감소세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2008년 4/4분기 12.1%, 2009년 1/4분기 26.5%로 본원통화가 급증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경상수지 대폭 흑자는 통화량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하락에 의한 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 지수인 CRB 지수가 2월 중 200.18까지 떨어진 이후 5월 27일 현재 246.46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또한 2008년 말 36.45달러에서 2009년 5월 27일 현재 61.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하반기에도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하게 되면 이는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 여행 증가로 여행수지도 다시 악화될 것이다.

(향후 정책 과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우선, 시장 차별화, 신시장 개척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로, 급격한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해 수출 위축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셋째, SOE투자, 서비스업 육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공공 요금 인상 자제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사전적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원자재 선물 거래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을 활성화해 시중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감소형 경상수지 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폭 감소 지속 -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월 35.6억 달러, 3월 66.9억 달러, 4월 42.8억 달러로 큰 폭의 흑자 지속 -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서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형태임

불황형 흑자에 가리워진 문제점	
국내 수출 부진 심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율이 총수출 감소율보다 높아 수출 경기 회복 지연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입 증가율이 -30%대를 넘고, IMF의 2009년 세계 교역량 전망은 -11.0%로 수출 부진 심화 우려
자본재 수입 감소에 의한 투자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11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후, 4월 -30.3%에 이름 - 투자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잠재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과도한 원화 가치 상승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대폭 흑자를 기록하면서 환율이 1998년 1/4분기에서 1분기동안 14.4% 하락 - 2009년에 들어서도 3월 2일 1,570원까지 급등한 환율은 4월 28일 현재 1,256원으로 20% 급락
통화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대폭 흑자로 본원통화 증가율은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한 자릿수 감소세로 상승 - 2008년 1/4분기 12.1%, 2009년 1/4분기 26.5%로 본원통화 급증.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고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흑자 지속 여부 불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B 지수가 2월 중 200.18까지 떨어진 이후 4월 2일 현재 246.46으로 상승세 · 국제유가도 2008년말 36.45 달러에서 2009년 4월 2일 현재 61.05 달러까지 상승 - 하반기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환율 하락에 따르는 해외 여행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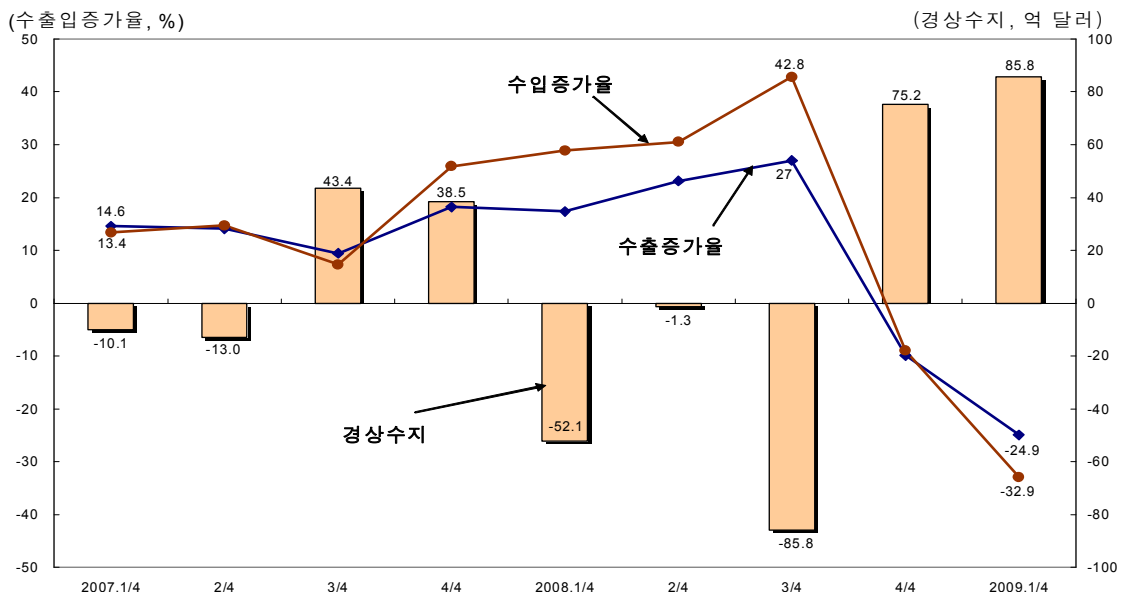
향후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시장 차별화, 신시장 개척 강화 등을 통한 수출 증대 - 둘째,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한 급격한 수출 위축 심화 방지 - 셋째, SOC 투자, 서비스업 육성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내수 기반 확대 - 넷째, 공공 요금 인상 자제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의 사전적 대처 방안 강구 - 다섯째, 원자재 선물 거래 등을 통한 원자재 구입 비용 최대한 절감 - 여섯째,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 활성화로 시중유동성을 생산부문으로 유도

1. 불황형 경상수지 대폭 흑자 지속

○ 경상수지 흑자가 월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상품 수지 흑자, 서비스 수지 적자폭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도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 기록
 -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2008년 1월 이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10월 이후 흑자로 전환
 - 월별로 보면, 2009년 2월 35.6억 달러, 3월 66.5억 달러, 4월 42.8억 달러로 큰 폭의 흑자 시현 지속
- 2009년 1/4분기 경상수지는 85.8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52.1억 달러 적자에서 대폭 개선된 것임
 - 2008년 3/4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경상수지는 2008년 4/4분기 75.2억 달러 흑자로 전환된 후 2009년 1/4분기에도 85.8억 달러 흑자 기록
 - 2009년 1~4월까지 경상수지는 128.6억 달러로 전년동기 -67.9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이는 상품수지가 2008년 1/4분기 12.2억 달러 적자에서 2009년 1/4분기 83.5억 달러의 큰 폭의 흑자된 것이 주요 원인임

< 경상수지와 상품 수출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서비스 수지는 50.7억 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크게 감소한 18.8억 달러 적자를 기록
 - 4월 여행수지가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2008년 4/4분기 7억 달러 흑자, 2009년 1/4분기에도 5.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경상이전수지도 저평가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국내로의 송금 증가 등에 의해 2009년 1/4분기 12.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흑자 달성

-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출 감소폭보다 더 큰 수입 감소폭에 의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형태를 지님
 - 수출유지형 흑자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출은 -10%를 넘지 않았으나, 수입은 1998년 3/4분기 -40.3%까지 하락하며 수출 하락폭이 수입 하락폭보다 작음
 - 수출감소형 흑자 :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11년 전과 유사하지만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폭이 큰 '수출감소형'이라는 점에서는 문제임. 2008년 4/4분기 수출은 10.8% 감소하였으며, 2009년 1/4분기에는 -24.0%까지 감소폭 확대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특성 >

(단위 : 억 달러, %)

	수출유지형				수출감소형	
	1998년				2008	2009
	1/4	2/4	3/4	4/4	4/4	1/4
경상수지	107.1	110.1	97.3	89.1	75.2	85.8
수출 (증가율)	326.9 (5.2)	343.3 (-4.3)	314.6 (-9.9)	336.6 (-8.4)	950.9 (-10.8)	782.1 (-24.0)
수입 (증가율)	229.7 (-37.0)	229.6 (-37.6)	208.6 (-40.3)	237.8 (-29.5)	901.2 (-8.8)	698.6 (-32.9)

자료 : 한국은행.

2. 불황형 흑자에 가리워진 문제점

○ 국내 수출 부진 심화

- (수출 총량 감소) 월별 수출액을 보면 2008년 7월 409.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1월부터 3월까지 200억 달러 대로 급락
 - 수출 증가율은 2008년 11월 -19.5%를 시작하여 6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 결과, 2009년 1월 수출 규모는 212.4억 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05년 2월 195.2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임. 단, 4월 수출은 300억 달러대로 회복
- (10대 수출 품목 감소)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수출만 호조를 보일 뿐, 나머지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율이 총수출 감소율보다 높아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
 -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월 34.2% 감소한 이후, 감소폭이 줄고 있으나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주요 10대 수출품(MTI 3단위 기준) 중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수출만 호조를 나타냄. 2009년 1~4월 중 이들 품목은 각각 37.1%, 24.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음
 - 반면, 2008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폭은 -40%대를 기록하였고, 반도체, 철강관, 자동차부품, 컴퓨터는 20~30%의 감소세를 유지

< 10대 수출 품목별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7	8	9	10	11	12	1	2	3	4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182	146.9	128.1	119.8	32.2	68.4	16.1	49.9	61.3	37.1
무선통신 기기	22.9	19.8	36.9	13.5	-24.9	-20.3	-22.1	0.9	-20.9	-17.4
반도체	-5.9	-12.9	-10.5	-26.1	-44.1	-49.9	-46.9	-40.6	-38.4	-26.2
자동차	-4.6	-16.4	-18.5	-13.5	-12.9	-28.1	-55.9	-33	-46.1	-42.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9.3	7.1	20.9	-2.2	-20.3	-43.9	-23.7	-4.1	16.8	24.1
석유제품	139.6	79.4	86.3	28.8	-26.6	-40.5	-37.4	-38.5	-45.8	-48.8
합성수지	52.3	15.4	23.1	-7.4	-34.9	-26	-34.1	-24.7	-23.1	-18.9
철강관	64.1	51	66.9	47.6	2.3	-11.4	-27.5	-23.4	-25.1	-31.9
자동차부품	36.2	13.7	23.9	6.7	-30.5	-33.3	-56.4	-40	-38.5	-34.9
컴퓨터	-25.5	-29.3	-30.6	-38.3	-53.4	-58.2	-58.2	-45.3	-45.8	-36.8
총수출	35.6	18.1	27.6	7.8	-19.5	-17.9	-34.2	-18.5	-22.1	-19.6

자료 : 무역협회.

- (지역별 수출 감소)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중동,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9년 4월 주요 5개 지역 수출 중 일본이 -31.8%로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다음으로 ASEAN -25.1%, 미국 -22.7%, EU -19.2%, 중국 -19.0% 순으로 나타남

- (세계 교역량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심화) 최근 주요국 수입 감소세가 30%를 넘고 있어 국내 수출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음
 - IMF의 2009년 세계 교역량 전망은 1월 전망시점에서 -2.8%이었으나, 4월 전망시점에서 -11.0%로 크게 낮춤으로써 수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임
 - 또한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5%에서 -1.3%로 하향 조정
 -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09년 1/4분기 각각 -30.0%, 일본 -37.2%, 중국 -30.8%를 기록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2007	2008	2009.1	2009.2	2009.3	2009.4
中國	12.2 (22.1)	11.5 (21.7)	-38.6 (21.0)	-13.6 (21.9)	-22.2 (23.1)	-19.0 (23.0)
E U	11.3 (15.1)	4.3 (13.8)	-40.3 (14.9)	-26.3 (12.5)	-26.0 (14.5)	-19.2 (14.2)
ASEAN	16.9 (10.4)	27.2 (11.7)	-37.6 (10.6)	-33.1 (10.9)	-27.8 (10.4)	-25.1 (11.0)
美國	4.5 (12.3)	1.3 (11.0)	-28.1 (12.4)	-18.3 (10.8)	-27.1 (10.6)	-22.7 (10.8)
日本	10.4 (7.1)	7.1 (6.7)	-34.4 (7.2)	-31.7 (6.0)	-35.0 (5.6)	-31.8 (5.6)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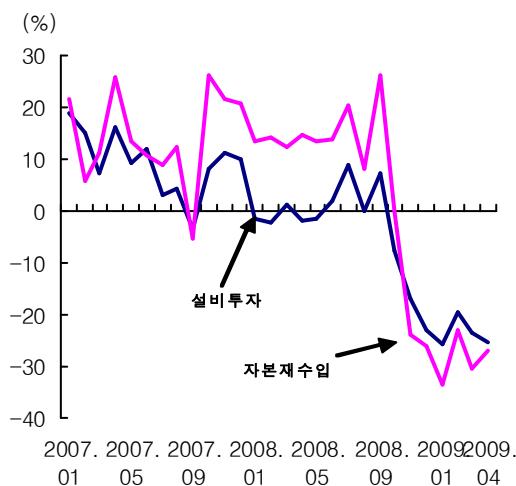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은 해당 기간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자본재 수입 감소와 투자 부진

- (자본재 수입 감소) 자본재 수입 감소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내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은 2008년 11월 -23.8%, 12월 -26.0%, 1월 -33.5%, 2월 -23.0%, 3월 -30.3% 4월 -26.8%로 감소세가 지속되며 이 중에서도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4월 -31.0%까지 하락
 - 자본재 수입 감소에 따라 설비투자도 2008년 11월 이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유지. 특히 실질기준 설비투자액은 2009년 1/4분기 17.7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2.1%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2001년 이후 최저 투자액임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4월 -25.7%로 여전히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투자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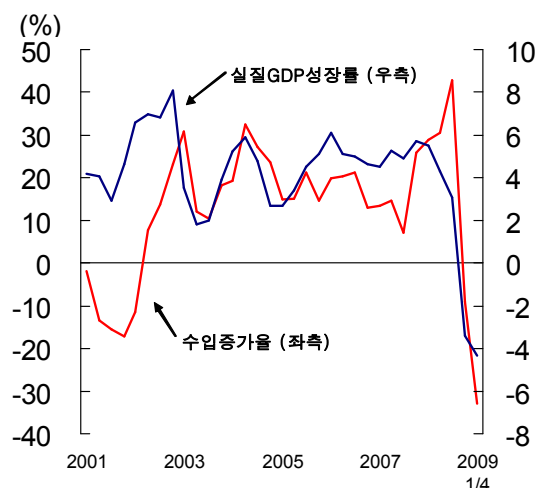
- (내수 침체 가속화) 자본재 수입 감소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시기에는 수입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수입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남
 - 설비투자 위축은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투자 감소세와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잠재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¹⁾

< 자본재수입과 설비투자 >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 경제성장률과 수입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1) IMF의 전망치인 2009년 -4.0%, 2010년 -4.2%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외화 유입은 과도하게 원화 가치를 상승시킬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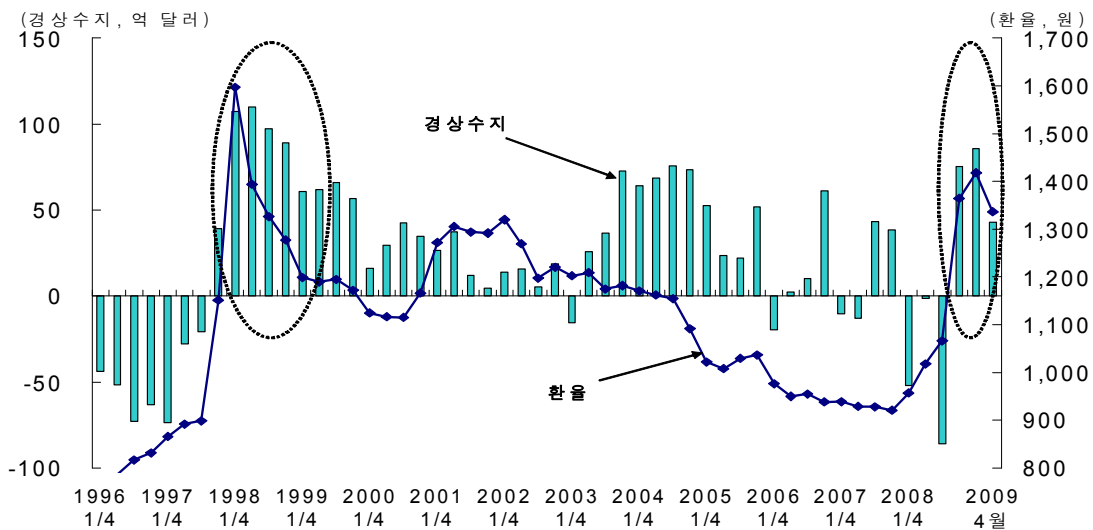
- (외화 유입과 환율 상승)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달러 공급 증가는 환율의 상승을 가속화시킴

-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4분기 107억 달러, 2/4분기 110억 달러의 대폭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환율은 1/4분기 1,596원에서 2/4분기 1,394원으로 떨어졌으며 1999년 1/4분기에는 1,198원까지 하락
-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4/4분기 75.2억 달러, 2009년 1~4월 128.6억 달러이며 환율은 4/4분기 1,364원, 2009년 1/4분기 1,418원을 기록. 2009년 들어 환율은 3월 1,570원까지 급등한 후 5월 28일 현재 1,256원으로 20% 급락

- (환율 하락세 가속화) 지속적인 달러 공급은 환율을 하락시킴으로써 수출 감소를 심화시킬 것임

- 환율 급락에 의한 수출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BIS의 27개국 실질실효환율 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한국 실질실효 환율은 현재 78.76으로 3월 72.95에 비해 상승했으나 기준인 100과는 크게 떨어져 있어 원화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높음
- 또한 원화 강세와 함께 일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국내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음

<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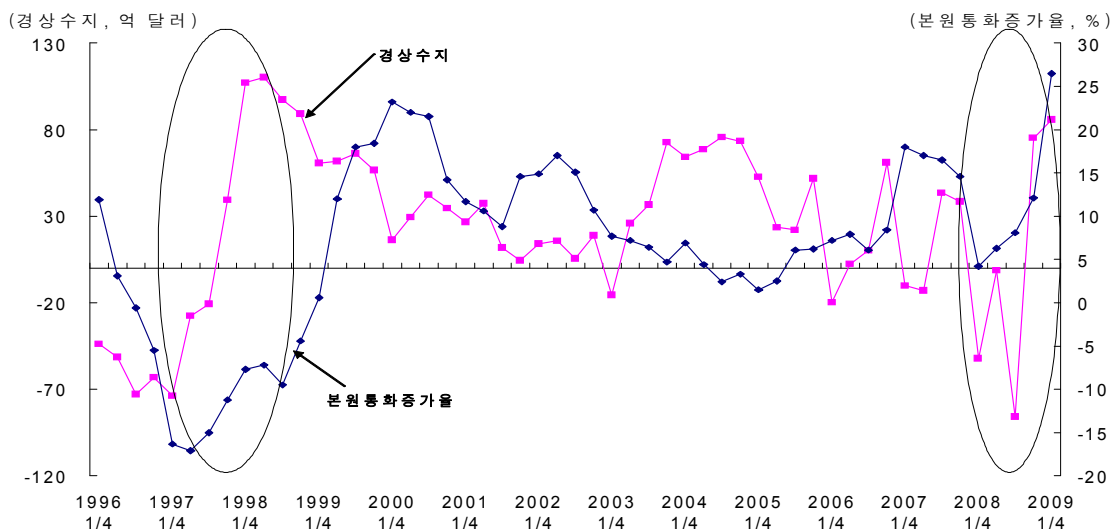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 증가는 물가 상승 압력을 증대시킴

- (본원 통화 증가) 2009년 1/4분기 85.8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본원 통화가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임
 - 1998년 1/4분기부터 1999년 1/4분기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107.1억 달러, 110.1억 달러, 97.4억 달러, 89.1억 달러, 60.7억 달러를 기록
 - 이 때 본원통화 증가율은 1998년 1/4분기 -7.7%, 2/4분기 -7.2%, 3/4분기 -9.5%, 4/4분기 -4.4%로 이전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한 자릿수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광의통화 증가율은 5분기 연속 20% 대 증가율을 보임
 - 최근 본원통화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12.1%, 2009년 1/4분기 26.5%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경상수지와 본원통화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물가 상승 압력)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 존재
 - 특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기조 속에 경상수지 대폭 흑자는 향후 통화량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경상수지 흑자는 외화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본원통화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통화 증대가 가속화되면 물가 상승이 우려됨

○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음

-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 하락) 최근에 들어 원자재 가격이 재상승함으로써 수입이 증가하고 환율 하락으로 여행 수지 적자 재전환이 예상됨

- 주요 상품선물 가격을 활용한 지수인 CRB 지수의 경우, 2월 200.18까지 떨어졌으나 3월말 220.40, 5월 27일 현재 246.46으로 상승
- 특히 국제유가는 2008년말 36.45달러에서 2009년 3월말 46.80달러, 5월 27일 현재 61.05 달러까지 상승
- 최근 환율을 월별로 보면, 3월 1,453원에서 4월 1,336원으로 하락세에 진입하여 2008년 4/4분기 7.1억 달러, 2009년 1/4분기 5.1억 달러로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2.5억 달러로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

-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상품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임

- 2009년 하반기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하면서 수입 감소폭이 확대될 것임
-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 여행 증가로 여행수지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두바이 유가와 경상수지 추이 >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1/4
경상수지 (억 달러)	-10.1	-13.0	43.4	38.5	-52.1	-1.3	-85.8	75.2	85.8
두바이유가 (달러/배럴 기간 평균)	55.52	64.8	70.1	83.2	91.4	117.0	113.5	52.6	44.2
원유도입액 (억 달러)	127.2	142.5	149.5	183.8	205.3	236.0	262.9	154.1	99.4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3. 향후 정책 과제

- 불황형 무역 흑자가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정부는 수출 증대 조치, 급격한 환율 하락 방지, 내수 기반 확대, 물가 상승 압력 사전적 대처, 원자재 수급 비용 절감,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등의 노력 필요
 - 첫째,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는 노력 필요
 - 시장 차별화, 신시장 개척 강화 등을 통한 수출 증대
 - 특히 인화 강세가 완화되기 전에 국가 및 기업 브랜드 제고 전략 강화를 통해 국내 제품에 대한 소비자층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둘째,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해 급격한 수출 위축 심화를 방지해야 할 것임
 -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기업들의 환차손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 셋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SOC 투자 및 서비스업의 성장동력 육성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
 - 넷째, 물가 상승 압력에 사전적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물가관리 체제를 지속시켜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는 서민 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
 - 다섯째, 원자재 선물 거래 등을 활용하여 원자재 구입 비용 최대 절감
 - 원자재 선물거래를 통해 가격이 저렴할 때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원자재 값 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여섯째, 시중 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을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생산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함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조 호 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P)	2009(E)
			2/4	4/4	1/4	2/4	3/4	4/4		
미국	2.8	2.0	4.8	-0.2	0.9	2.8	-0.5	-6.3	1.1	-2.8
EU	2.9	2.6	0.3	0.4	0.7	-0.3	-0.3	-1.6	0.8	-4.2
일본	2.0	2.4	-0.3	0.6	1.4	-4.5	-1.4	-12.1	-0.6	-6.2
중국	11.6	13.0	12.6	11.3	10.6	10.1	9.0	6.8	9.0	6.7
한국	5.2	5.1	5.3	5.7	5.5	4.3	3.1	-3.4	2.2	-4.0

주 : 2008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4월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5월 22일	5월 29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3.97	2.21	2.66	3.45	3.64	0.19%p
	엔/달러	111.71	106.22	90.76	98.53	94.67	96.87	2.195¥
	달러/유로	1.4590	1.5755	1.4042	1.3249	1.4018	1.3926	-0.0092\$
	다우존스지수	13,265	11,350	8,776	7,609	8,277	8,404	126.48p
	닛케이지수	15,380	13,481	8,860	8,110	9,226	9,523	296.6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5.90	3.41	3.94	3.85	3.85	-%p
	원/달러	936.1	1,046.0	1,259.5	1,383.5	1,247.4	1,255.0	7.6원
	코스피지수	1,897.1	1,674.9	1,124.5	1,206.3	1,403.8	1,395.9	-7.86p

주 : 5월 29일 해외 지표는 전일(5월 28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5월 22일	5월 29일		
국제 유가	WTI	95.97	140.03	44.61	49.65	60.93	65.09	4.16\$
	Dubai	89.30	136.16	36.45	46.80	59.51	61.23	1.72\$
CRB선물지수	358.71	462.74	229.54	220.40	242.36	249.83	7.4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